

〈趣 旨 文〉

「韓國大學博物館發展을 위한 協議會」開催에 즈음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大學博物館들은 잘 인식되고 있듯이 두가지 큰 使命을 띠고 있다고 믿어진다. 그 하나는 大學教育 내지는 社會教育에 적극적으로 이바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歷史와 文化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각종 文化財를 蒐集, 保存, 展示, 調査, 研究하는 文化機關으로서의 技能을 발휘하는 일이라 하겠다. 즉 國家發展에 必要한 教育的 技能과 文化的 技能을 함께 발휘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大學博物館이 발전하게 된 연유도, 또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만 할 당위성도 바로 이러한 사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1930년대에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大學博物館은 半世紀가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外的으로는 많은 성장을 해왔다. 1961年 5月 5일에 결성된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會員校數가 당시의 18個校에서 今年 6月 總會때를 기하여 52個校로 늘어난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를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外的인 성장과 더불어 內的인 발전이 과연 알차게 이루어져 왔는지,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수행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아직도 많은 대학들이 대학박물관의 設立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設立된 博物館들조차 博物館다운 人的 構成이나 施設, 그리고 財政의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실질적으로 大學博物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大學들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태의 改善이 없이는 大學博物館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대부분의 大學博物館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人才難, 財政難, 施設難의 소위 三難으로 집약된다. 말하자면 거의 모든 大學博物館들이 다소간을 막론하고 이 三難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三難은 비단 大學博物館만이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教育機關과 文化機關들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現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大學博物館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三難을 어떻게 克服하느냐에 大學博物館 發展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專門人力의 확보와 기용, 大學博物館 事業을 펴고 이끌어가기에 적절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소기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諸般施設의 확보가 이루어질 때 각 大學博物館은 비로소 제대로의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오늘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이러한 모임을 갖게 된 것도 결국 上記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모색해 보자는데 가장 큰 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學博物館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현재의 우리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들을 파헤쳐 보며, 그 改善方案을 함께 탐색해 보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 大學博物館 關係者들의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 어느때가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각 대학의 경영자들은 물론, 大學博物館과 관계가 깊은 文教部나 文化公報部 당국의 理解를 넓히고 따뜻한 배려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役割이 國家的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이러한 의의깊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濟州大學校總長 玄平孝 博士님, 이 모임이 가능하도록 모든 實務的인 어려움을 감내하고 도와 주신 同校博物館長 玄容駿 教授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玉稿를 내주시고 發表를 맡아 주신 秦弘燮, 安承周, 尹世英 세 분 선생님께 韓國大學博物館協會의 會員 여러분과 함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982년 11월

韓國大學博物館協會長 安 輝 濬